'무농약 보성녹차' 재배 급증

올 전체 33% 448농가 인증 '친환경녹차' 재배

잔류농약 검사 지속 실시 고품질 제품생산 총력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무공해 보성 녹차'가 늘고 있다.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보성지역에서 녹차 재배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증된 '무농약' 인증 단지는 모두 6개 단지, 448개 농가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녹차재배 농가 1천358호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작년 말 '친환경 재배' 인증을 받았던 전체 농가가 300여 가구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보성군도 모든 녹차재배 농가들을 유기농 재배로 유도해 녹차제품의 품질과 수준을 높여 새로운 판로확보는 물론 고품질 녹차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녹차 관련 제품들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고품질 친환경 녹차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보성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보성산 녹차원료 및 제품 50점을 수거해 농약성분 150개 항목에 대한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 녹차사업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을 선호하면서 '농약 녹차' 파문 이전부터 농가 스스로 무농약 재배를 확대하고 있다"며 "친환경 녹차재배 확대를 위해 행정기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곡성으로 밤하늘 별 구경오세요

섬진강천문대 내일 개관

돔스크린·관측실 등 갖춰

곡성 섬진강천문대가 19일 개관한다. 〈사진〉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에 위치해 있는 섬진강천문대는 국·도비와 군비 등 모두 14억 원을 들여 지난 2005년 착공, 올해 초 공사를 마무리 하고 6개월여의 시험운영을 거쳐 이날 문을 연다.

천문대 규모는 부지 2천300㎡에 연건평 400㎡의 2층 구조로 1층에는 지름 8m의 원형 돔 스크린을 갖춘 천체투영실과 태양계 8대 행성 및 운석을 볼 수 있는 학습공간 등이 설치돼 있다.

2층 주 관측실에는 지름 6m로 360도 회전하는 원형 관측 돔에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한 600㎜ 반사 망원경이 설치돼 있고 보조관측실에도 다양한 종류의 망원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600㎜ 반사 망원경은 토성의 띠나 목성의 줄무늬까지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 성능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관람객에게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천문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자료 교류, 천문과학 체험행사 공동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섬진강천문대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하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먹통 가로등' 광산 주민 불편

지난 8월 장마 여파로 광산구 관내 곳곳에서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같은 원인은 지중화 사업으로 지하에 매설된 전기선로가 스며든 빗물로 인해 누전이 발생, 차단기가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광산구 관내 점멸기가 설치된 가로등 310개소 중에서 이번 가을 장마로 50개소의 가로등이 고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점멸기에 부착된 차단기가 누전으로 고장을 일으켜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 12일까지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가학산 자연휴양림 1일 체험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이 관내 초등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옥천초등학교 학생 120여명은 최근 가학산 자연휴양림에서 나뭇잎 탁본뜨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시간을 가졌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숲속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순천시 120억 토지 매입계획 제동

순천시의회 "주민·의회와 상의 없었다" 승인 거부

순천시의회가 120억원을 들여 각종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는 집행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순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총 소요예산 12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매입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공유재산 매입 사업은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구입(소요 예산 66억 원)과 송광면 종합체육관 건립(20억 2천만 원) 및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부지매입(1억 7천800만 원) 등 8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시가 일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시가 왕지동에 건립하려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주민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주암면 쓰레기 소각장 대체 장소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회가 정상적인 시 행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종합체육관 건립 등 일부 사업은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강진청자축제 40만명 몰렸다

외국인 등 체험프로그램 인기 … 50억 경제효과

올해 강진청자축제에 역대 최다 관중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흙·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9일간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 일대에서 열렸던 제 12회 강진 청자문화제는 짜임새 있는 운영과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강진군은 행사 기간동안 외국인 2천명 등 총 40만1천370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50억원의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방문객 숫자는 행사장 입구 3곳에서 수동식 계수측정기를 이용해 측정됐다.

또 20%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액도 강진청자를 포함한 직접소득액은 3억8천547만여원(2006년 3억7천209만여원)에 달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귀성객 특별수송등 편의제공

완도군, 24시간 행정서비스

완도군이 추석 연휴 귀성객과 군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4시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도군은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귀성객 특별수송·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7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추석 연휴인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돗물·쓰레기는 물론 교통대책, 행정 민원 처리 등을 위해 6개 반 45명이 근무하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23일 이틀간 귀성객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는 화흥포항 및 항만터미널 등에서 귀성객 현장 안내소와 자원 봉사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귀성객 및 군민들이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여수시 경호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종합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여수시 경호동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호동 일대 3.06㎢를 오는 2012년 9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토지를 거래할 경우 여수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 기타지역 90㎡ 이하 등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현재 전남도 내에는 11개 시·군에 2천215㎢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함평 농기센터 최선희씨 '종자 기술사' 시험 합격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최선희(33·사진) 지도사가 '종자 기술사'시험에 합격했다.

최씨는 "종자(種子) 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이자 미래산업"이라며 "우리나라도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종 종자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